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은행 ' 22년 4/4분기 이익 큰 폭 감소 세부 평가는 은행별로 상이
 - IMF, 세계경기는 금년 저점 통과 기대.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 ECB, 2월 0.50%p 인상 예상. 이후에는 금리인상 폭 축소 검토 예상
 - 중국 ' 22년 4/4분기 성장률, 전기비 큰 폭 하락. 코로나 팬데믹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업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골드만삭스 등 일부 은행의 실적 악화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글로벌 경기우려 불구 광산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3% 하락, 엔화는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증가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8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36.1원, -2.6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1/17일	1/16일	전일대비			1/17일	1/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1.0	휴장	-0.20%	국채금리 10y	미국	3.55%	휴장	4bp
	유럽	456.46	454.63	0.40%		독일	2.09%	2.18%	-8bp
	중국	3,224.2	3,227.6	-0.10%		영국	3.32%	3.38%	-6bp
	일본	26,139	25,822	1.23%	CDS 5y	한국	42bp	43bp	-1bp
	한국	2,379.4	2,399.9	-0.85%		중국	52bp	53bp	-1bp
	달러지수	102.38	102.37	0.17%	위험지표	EMBI+	-	377	-
유로화	1.0788	1.0822	-0.31%	VIX		19.36	휴장	-0.67%	
환율	엔화	128.12	128.58	0.36%		WTI유	80.18	휴장	0.40%
	위안화	6.7719	6.7382	-0.50%	원자재	구리	423.5	413.9	0.44%
	원화	1,238.7	1,235.3	-0.27%		금	1,908.7	1,916.0	-0.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은행, '22년 4/4분기 이익 큰 폭 감소, 세부 평가는 은행별로 상이

-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양 은행의 매출(각각 -16%, -12%)과 이익(각각 -66%, -40%)은 모두 전년동기비 감소. 이번 결과는 인수·합병, 신규상장 등 투자은행부문 매출 부진에 기인
- 골드만 삭스는 대규모 상여금 지급 등 비용의 대폭 증가 등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큰 폭 하락(-6.4%). 반면 모건 스탠리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산관리부문 호조 등으로 향후 실적 전망 관련 긍정적 평가가 많은 편. 이에 주가는 상승(6.2%)
-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발표가 시작되며 관심은 기업의 고용, 임금, 이익 마진 등에 집중될 전망. 경미한 경기침체 가능성 고려 시 기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Murphy & Sylvest Wealth Management)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금년 세계경기의 저점 통과 기대.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러·우 전쟁과 금리인상 등에도 금년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연초 이후 경제 관련 긍정적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경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관측
- 고피나스 부총재도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개선 가시화를 기대한다고 밝혀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공개된 이후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증가

■ BofA, 기관투자자의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이 축소, 실적둔화 전망 등에 기인

- 펀드매니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미국 증시 비중을 줄인다고 의견을 피력. 이는 17년래 최저 수준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가 반영. 반면 유럽과 신흥국 투자 비중은 확대

■ 미국 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전월비 큰 폭 하락. 저조한 신규수주 등이 원인

- 이번 달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32.9를 기록하여 전월(-11.2) 대비 급락.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27.5→-31.1), 고용(11.2→2.8) 등이 부진

■ ECB, 2월 0.50%p 인상 예상. 이후에는 금리인상 폭 축소 검토 예상

- 익명의 관계자들은 2월에 0.50%p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3월부터는 0.25%p 인상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에너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압력도 줄어듦 것으로 관측(Bloomberg Economics의 Maev Cousin)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경제성장을 억제할 정도로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센테노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보다 긍정적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

■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라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

- 1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전월비 상승(-23.3→16.9).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 솔츠 총리와 하벡 경제장관은 금년 독일이 경기침체를 회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

■ 중국 '22년 4/4분기 성장률, 전기비 큰 폭 하락. 코로나 팬데믹 등이 영향

-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2.9%로 전기(3.9%) 대비 낮으나 예상치(1.9%) 상회. 이번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과 대외수요 부진 등에 기인. 한편 '22년 전체 성장률은 3.0%로 정부 목표(5.0%) 달성에 실패
- 한편 류허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19 감염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주장. 부동산 시장 불안 및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이 평탄하지는 않을 전망(Moody's Analytics)

■ OPEC, 1/4분기 수급 균형을 기대. 조심스럽게 긍정적 경제 전망 제시

- 보고서를 통해 전월 대비 일일 12만배럴의 공급 축소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과 결합하여 배럴당 국제유가 가격이 85달러에서 지지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8 현지시각 기준)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미국 베이지북 및 '22년 12월 소매매출
- 미국 '22년 12월 생산자물가 및 산업생산, 유로존 '22년 12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CPI), 단기 급락 후 반등할 가능성 - 블룸버그

(Sub-2% Inflation Is on the Horizon, But It Won't Last)

- 금년 미국의 근원 CPI는 일시적 급락 이후 반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 이는 주요 제조업 제품 가격이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나 물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측정되기 때문. 이에 향후 하락 지속 혹은 마이너스(-) 상승률 가능
- 이에 더해 최근 주택 임대시장 둔화에 따른 주거비 하락으로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2% 하회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이후에는 주택시장 회복 영향에 상승할 것으로 관측.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변동은 당국과 투자자의 물가전망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 미국 달러화 약세, 금리 조정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 - Financial Times

(The downturn in the dollar is not just about rates)

- 미국 달러화는 세계경제가 불안하거나 미국의 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모두 강세. 이를 고려한다면 최근의 미국 달러화 약세는 여타국의 경기상황 변화를 의미
-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유럽의 온난한 동절기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성장에 긍정적. 여타국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연준이 금리인상을 늦출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하면, 달러화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
- 하지만 급격한 달러화 약세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통화긴축 강화를 초래할 가능성. 이에 달러화 약세만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및 안정 관련 우려 해소는 기대난

■ 미국 증시, 기업의 실적 둔화가 통화정책 불확실성보다 더 큰 위험 - 블룸버그

(Worrying About the Fed Is So Last Year. Here's Why)

-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 등 경제 관련 뉴스보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
- '22년 12월 고용보고서 및 소비자물가 결과는 경기연착륙 기대를 높이고 있으나, △기업실적 둔화 △일본은행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중국의 경제회복 불확실성 등은 증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속될 소지
- 특히 기업이익 전망치는 시장의 낙관론과 달리 과거 경기침체기 직전과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 유의. 작년에는 거시경제(Top-down) 변수가 증시를 좌우했으나 금년에는 기업 펀더멘털(bottom-up)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미국 셰일오일 투자 위축, 원유시장의 패권 이동 가능성 시사 - Financial Times

(What the end of shale revolution would mean for the world)

- '22년 미국은 대러 제재의 반사 이익으로 원유 수출이 급증. 지난 15년간 미국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던 셰일혁명의 수혜는 러-우 전쟁 등으로 절정에 도달
 - 그러나, 현재 셰일혁명은 생산비용 증가, 인력부족, 재투자 감소 등으로 막바지 국면일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으로 셰일업체들이 잇달아 파산한 가운데,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 고점을 하회하며 향후 12개월 예상 생산량도 2% 증가에 불과. 전문가들은 셰일오일이 더 이상 원유시장의 *스윙 프로듀서가 아닐 수 있음을 경고
- *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생산량 조절을 통해 전체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유국. 통상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해당 역할을 담당
- 원유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셰일오일 생산 감소는 서방과 불안정한 관계에 있는 사우디 등 OPEC 국가들의 원유시장 영향력과 지정학적 위상을 키우면서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미국 투자자, 최근 주가 상승 불구 경기침체 등 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Buoyant Markets Need to Keep an Eye on Four Risk Factors)

■ 미국 정치권, 중국과의 경쟁 위해 인도의 제조업 성장 지원이 요구 - WSJ

(Can India Emerge as a Rival to China?)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노동력 감소·생산성 하락·수출 둔화 등의 위험 내재 - 블룸버그

(China's Reopening Isn't a Return to 2008 Exube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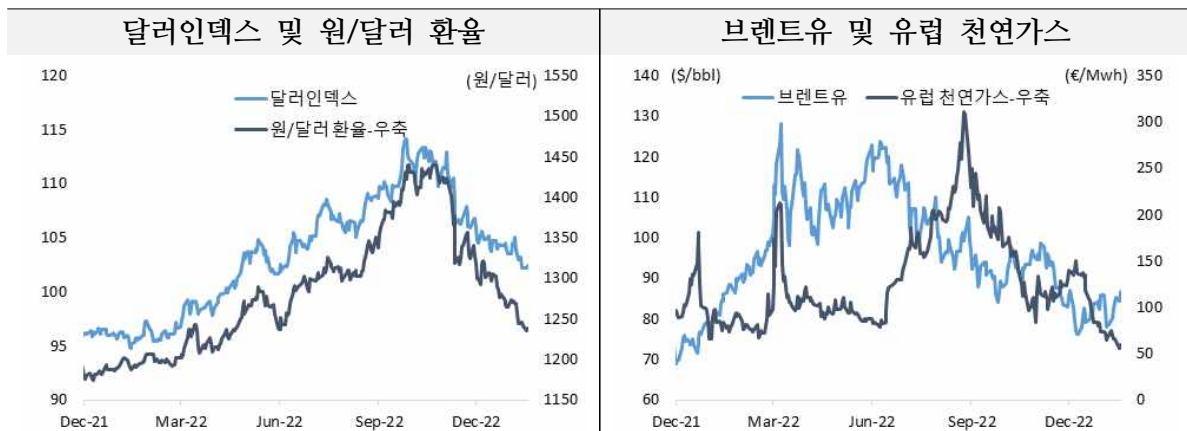
■ 중국 경제성장,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수요 촉진이 중요 - 블룸버그

(Poor Economy Shows China Needs to Own Recover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